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khunews

학내 빈번한 도난사고 내부소행 가슴아파

우리가 경희인의 자격으로 생활하는 곳. 정겨움으로, 대학생활의 추억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공간, 도서관·학생식당·휴게실. 이러한 우리의 생활공간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 소지품이 분실될까 화장실도 못가는 불안함의 제공처가 되고 말았다.

요즘들어 도난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도 발생했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새 학기를 맞아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내 자신은 다행히도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주위 친근한 이들이 도난사고를 당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아쉬움이 단순히 도난 당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 때문일까. 분명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그 도난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애처로움의 발로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이유일 것이다.

도난 당하는 물건들을 보면 지갑, 돈, 워크맨, 책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물품도난사건을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일까. 그 소행의 주범을 알면서도 차마 말할 수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면서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범인은 우리 친구이며 함께 생활하는 경희인이기 때문이다. 직접 훔치는 것만을 범죄라고 말할 순 없다.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도난 당하면 다시 사지."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범인의 실체일지도 모른다.

이 인 균
〈자연대 물리2〉

농구인기 비해 농구코트 너무 부족

며칠 전 도서관을 향하던 길에 노랗게 꽃망울을 피운 개나리를 보게 되었다. 문득, 무섭도록 그 위용을 자랑하던 동장군도 봄의 전령을 어찌할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봄, 싱그러운 봄내음은 경희대 교정 곳곳에서 쉽게 느낄수 있다. 여학우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노천극장에 앉아 나른한 봄햇살을 즐기는 학우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에서까지. 나에게는 봄의 기운을 만끽할수 있는 특별한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운동장이 그곳이다. 대학 2학년생이 된 나도 어느덧 선배라는 소리를 들으며, 새내기들과 농구장에서 종종 땀을 흘리곤 한다.

"형, 그런데 우리 학교는 농구코트가 왜이리 적어요?" 후배녀석의 갑작스런 물음에 대답이 궁했던 나는 농담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몰라. 총장님께 물어봐" 그런데, 총장님. 왜 이다지도 우리 학교는 농구장이 부실한가요?

몇년 전부터 농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땅을 후벼 팔정도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NBA선수들의 화려한 모습에 매료되기도 했겠지만, 농구는 별다른 장비없이, 적은 인원만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때문이 아닐까 한다.

경희대내에서도 농구의 열기는 예외없이 뜨겁다. 그런데, 우리학교 농구코트의 실상은 어떠한가? 협소한 장소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수십개의 공을 던지는 것을 보노라면, 흡사 벌집에 우글거리는 벌때의 모습이 쉽게 떠오른다.

협소한 코트에 비해 너무 많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상이 염려될 정도이고, 작년에 설치한 농구대는 발목이 겹질리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축구부 슛 연습이라도 있는 날이면 대포알같은 축구공을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우리 학우들은 농구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리가 나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 일쑤다.

사회체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농구는 무엇보다 훌륭하게 사회체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따. 며칠 전, 경희대 농구부가 결승에 오른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뻤지만 대운동장 농구코트를 생각하면 괜실히 씁쓸해지는 것은 왜일까?

박 병 용
〈철학2〉

학내Rock공연 수업방해 공연활동공간 마련돼야

봄이 무르익으면서 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 3일에는 한 Rock Group공연이 그동안 무료했던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외대 앞에서 있었던 그들의 공연은 학생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해주며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을 받는 공대와 외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이기도 했다.

물론 대학내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연이 이루어진 장소가 학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단과대학 앞의 열려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공부만을 위한 곳은 아니다. 학업이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간의 활동이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대학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연과 같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공연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 영 부
〈산공 2〉

고 침

1115호 11면 인터뷰 기사 가운데 '1백8표중 78표를 얻어'를 '1백7표 중 87표를 얻어'로 고칩니다.

또한 1면 전학대회 기사 가운데 '대의원 총 2백38명 중 1백8명만이 참가해' 부분을 '대의원 총수는 본래 2백38명이나 미선출로 27명 사고결, 학과행사 참여로 20명 사고결 처리되어 제적인원 1백91명 중 1백7명이 참가해'로 고칩니다.

내가 본 한국 ① 음주문화

한국인과 술마시기 '장난이 아니예요!'

잔티엔
〈네델란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경희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과정〉

우리신문은 외국 학생들의 눈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제대로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본 한국'을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며칠 전 대학로에 있는 나의 기숙사로 가는 길에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업고 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 여학생이 아픈 줄 알았다. 그래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걸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여학생과 남학생 둘 다 길거리에 넘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둘 모두 술에 취해 있음을 알았다. 술에 취한 남학생이 역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바래다 주기 위하여 그녀를 업었다가 힘에 부쳐 그만 넘어진 것이었다. 걱정이 되어 가까이 가보니,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네델란드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맞다면, 불행하게도(?) 한국의 수호천사가 제일 바쁜 천사가 되지 않을까?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에 위치한 우리 기숙사의 부근에는 젊은이 취향의 호프집과 소주방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술에 취한 학생들과 심지어는 고래고래 고함을 외치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자주 있다. 사실 네델란드에서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술을 마시게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네델란드에서 보낸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 마신 술보다 4개월동안 한국에서 마신 술이 더 많다.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 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비슷하다. '몇살이세요? 결혼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술은 얼마만큼 마셔요? 특히 한국남자들은 얼마만큼 술을 잘 마시느냐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다음날 일이나 공부에 지장이 없다면 음주는 별 문제가 안된다. 그렇지만 언제나 만원인 호프집, 소주방…

놀라운 것은 많은 남학생들이 엄청난 양의 알코올을 부어넣고 여자친구들 앞에서 술과의 경쟁을 서슴치 않는다. 그들을 볼 때, 나는 종종 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아무도 술 때문에 생기는 간암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한국사람들의 음주방법과 음주원인은 서양인들과 아주 많이 다르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을 즐기지 취할 정도까지는 잘 마시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술을 한꺼번에 마신다. 한국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정말 장난이 아니다. 'one shot' 또는 잔돌리기 등등 … 그중에서도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 선배와 상사의 술잔을 거부할 수가 없다. 좋든 싫든지 간에, 또 강제로 마시는 술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네델란드의 모든 술병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즐기십시오. 그러나 절대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네델란드 사람들은 점차 과음의 위해성을 자각해 가고 있다. 음주에 관한 슬로건중에는 '알코올,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파괴시킨다'는 것도 있다. 물론 네델란드에도 알코올 중독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대부분의 알코올 선호 현상 때문에

음주방법 서양인과 달라 '곤혹'

이었다. 걱정이 되어 가까이 가보니,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네델란드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맞다면, 불행하게도(?) 한국의 수호천사가 제일 바쁜 천사가 되지 않을까?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에 위치한 우리 기숙사의 부근에는 젊은이 취향의 호프집과 소주방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술에 취한 학생들과 심지어는 고래고래 고함을 외치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자주 있다. 사실 네델란드에서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술을 마시게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네델란드에서 보낸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 마신 술보다 4개월동안 한국에서 마신 술이 더 많다.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 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비슷하다. '몇살이세요? 결혼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술은 얼마만큼 마셔요? 특히 한국남자들은 얼마만큼 술을 잘 마시느냐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다음날 일이나 공부에 지장이 없다면 음주는 별 문제가 안된다. 그렇지만 언제나 만원인 호프집, 소주방…

놀라운 것은 많은 남학생들이 엄청난 양의 알코올을 부어넣고 여자친구들 앞에서 술과의 경쟁을 서슴치 않는다. 그들을 볼 때, 나는 종종 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아무도 술 때문에 생기는 간암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한국사람들의 음주방법과 음주원인은 서양인들과 아주 많이 다르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을 즐기지 취할 정도까지는 잘 마시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술을 한꺼번에 마신다. 한국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정말 장난이 아니다. 'one shot' 또는 잔돌리기 등등 … 그중에서도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 선배와 상사의 술잔을 거부할 수가 없다. 좋든 싫든지 간에, 또 강제로 마시는 술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네델란드의 모든 술병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즐기십시오. 그러나 절대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네델란드 사람들은 점차 과음의 위해성을 자각해 가고 있다. 음주에 관한 슬로건중에는 '알코올,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파괴시킨다'는 것도 있다. 물론 네델란드에도 알코올 중독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대부분의 알코올 선호 현상 때문에 정작 알코올 중독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나는 한국에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또 그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음주는 단지 취미이며 수면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한국학생들이 오늘부터 금연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던가. 그러나 금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 같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한국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것은 핑계다. 스트레스 풀기 위한 방법이라면 얼마나 많은 다른 문화적인 방법이 있는가!

당신들은 술을 마신다. 대안문화를 찾지 못한 채.

朔風

법을 '밥'으로 아는 세상

지난 연말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미모의 탤런트 S모양을 두고 법원은 구속적부심 결과 '공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는등 이유를 들어 전격 석방한 데 이어 지난 4월 2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사고당시 S양이 촬영중이던 영화 제목처럼 그야말로 '깊은 슬픔'을 맛봐야 했다. 황보씨 귀순사건이다 고위층 뇌물 수수사건이다 한보사태다 뭐다 하는 식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언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인지 S양 사건에 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사회면 마지막에 오른 1단짜리 그 기사에 못내 아쉬운 눈길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 정읍지원이 과속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회사원 대모씨에 대하여, 울산지원이 사망사고후 17일만에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는 보도가 다시금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행하게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법은 있되 정의는 실종되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법과 정의하면 우선 우리는 법원과 검찰을 포함하는 법조를 쉽사리 연상하게 된다. 법치국가에서 정의란 대개 법을 통해 구현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법을 통해 정의가 구현된다는 의미는 법 자체가 곧바로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후진국이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우리는 거기에 '악법'이란 수식어를 달아주곤 한다. 악법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심각하다.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난도질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대개 법은 그 자체로서 정의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 따위 법이 어디있어'라는 불만을 자주 토로하곤 한다. 그 의미를 곱씹어 보노라면 결국 문제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법은 법전 속에 그냥 그대로 '씌어져' 있을 뿐이다. 마치 과일이 사과나무에 그대로 열려 있듯이, 그 사과를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듯이 바로 그렇게 법은 사람을 통해 보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품고 있는 불만의 실체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법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등과 정의를 안겨 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심한' 법이 사람에 의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우리들이 여러형태로 배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사람을 통해 결국 돈 앞에 평등한 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다.

물론 S양 사건을 비롯한 몇몇 사건만으로 법과 법조를, 그 정의에의 의지를 저울질할 수는 없다. 몇몇 검사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보고, 몇몇 법관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놓고 법조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향한 의지는 몇몇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 그 오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남기 때문이다. 정치가 법을 억압하고 경제가 법을 우롱하고 그래서 법이 '밥'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말이나마 법조에 기대고 싶은 심사를 갖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법이라는 열매에 가까이 서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섭〉

수원 학생회관식당 이름공모 수상작

· 당선작(CT2)

교직원 식당—목련정(교양과 이관식 교수) : "목련화"와 같은 유래
학생회관—다우관(일문 조영희) : 많은 친구들이 모여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곳.

· 우수작(전자수첩)

교직원식당—클레테리아(기계 김덕수) : Clean+Cafeteria
학생회관—애학원(환경 조철휘) : 학생을 사랑하는 집

· 가작(교직원식당 식권 10매)

교직원식당—한울식당(회계 김덕원)
淸松園(환경 김현섭)
敎食의 집(농학 박상식)
학생회관—사색의 식당(원자력 류정동)
하나로 식당(환경 이태정)
온누리(영문 신창섭)

· 수상자외 참가자(교직원 식당 식권 1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절교통보를 전해드리는
선경의 이동통신도 참 안타깝군요.
진심으로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느 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다보니 본의아니게
이런 부작용도 나오게 되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011, 012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인 011, 012의 SK Telecom은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여 한국을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NO.1 기업, 선경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선경이 약속드립니다.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회사가 몰려와도
우리 시장은 우리 기술로 선경이 지켜나갈 것을…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 선경채용상담실 02) 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을지로2가 36-1 선경빌딩 1층
· Internet 채용 Hom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